

LLDPE, LG-호남 덤핑공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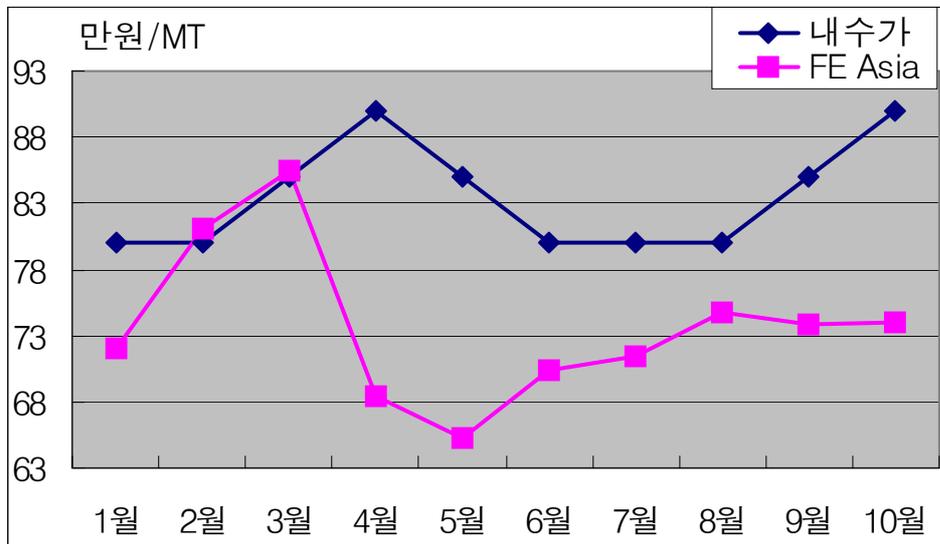
현대 인수이후 시장점유율 확보전략 ... 국제가격 강세도 무위

10월 톤당 90만원에 거래됐던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Film 그레이드 가격이 11월 톤당 5만원 인상된 95만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LL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11월에는 LLDPE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LLDPE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내수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LDPE는 10월3일 호남석유화학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No.3 플랜트 폭발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가격이 10월 초 FE Asia 톤당 605-625달러에서 11월 둘째주 700-720달러로 95달러 인상돼 최근 HDPE를 비롯한 PE가 국제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시장 인상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LDPE 가격추이(2003)



그러나 다른 LL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11월과 12월 가격인상 요인에 따른 LLDPE 가격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11-12월이 수요기업의 재고물량 떨어내기 시즌인 점을 감안할 때 LLDPE 가격도 동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LL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10월20일 현대석유화학 Polymer 내수영업팀 분리인수 이후 일부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이 공격적인 태세로 시장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미 저가공세로 시장경쟁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현대석유화학의 인수분리 이후 PE 시장 움직임에 대해 생산기업 관계자는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Polymer 내수영업권 인수로 생산능력 대비 시장점유율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시장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안정적 공급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